

정읍시, 교통약자와 '행복 동행'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충 대기시간 단축 위해 차량 증차 기사 3명 추가 선발...피로도 개선

정읍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과 서비스 확충에 나섰다.

정읍시는 장애 정도가 심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이동 수단을 확충하고 이용 편의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차량을 증차했다. 특히 운전기사의 피로도 개선으로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운전 기사를 3명 더 선발해 총 21명을 투입한다.

또 18대의 장애인콜택시 차량 중 10년 이상 운행해 노후한 차량 1대를 교체하고 추가로 택시 4대를 임차해 장애인 이동권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이용대상자로 의사 진단서 첨부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다.

이용 방법은 시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을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사전 예약하거나 즉시콜제를 이용해 신청하면 24시간 언제나



정읍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과 서비스를 확충했다. (정읍시 제공)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콜택시 이용 건수는 2만 9417건으로 1일 1대 평균 5명의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

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특히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교통 흐름 '스마트 관리'

교통정보센터 개관...불법주정차 시스템 이관 등 총괄 관리

남원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교통정보센터가 문을 열었다.

남원시가 교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제어하는 교통정보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통정보센터는 143.28㎡ 규모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층을 리모델링해 관제실, 회의실, 사

무실, 센터실을 구축했다.

지난해 구축된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과 기존 교통상황실에 구축돼 있던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이관해 교통정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 교통 흐름 개선과 돌발상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2022년-2023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신호온라인화, 스마트교차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돌발상황관리시스템, 교통정보제공시스템 등을 구축해 왔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원시 교통정보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의 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우선신호 등의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실력·인성 키운다' 교육학습공동체 공모

전북교육청, 58개 사업·891팀 지원...최대 1인 3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학교 문화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2024학년도 교육학습공동체'를 지원한다.

교육학습공동체란 교원 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 활동으로서 연구회, 교사연구회, 학생중심동아리(옛 사제동행)의 세 분야로 이뤄져 있다.

도 교육청 각 사업 부서에서는 ▲교과 및 범교과 교사들의 수업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교사연구회

390팀 ▲교과(비교과) 연구를 목적으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회 153팀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학생중심동아리 348팀 등 총 58개 사업에서 891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교육학습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도교육청·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 교육학습공동체 누리집을 통해 공모방식을 일원화해 운영한다.

또 중간보고회 및 컨설팅이 신설되고, 교육학습공동체 운영의 날을 통해 일반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교원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 교육학습공동체(https://www.jbe.go.kr/group/index.jbe)에서 사업별 공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교과 및 학생생활지도 역량 분산 방지를 위해 교원 1인당 3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교육학습공동체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각 팀당 150만~5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 결과는 사업 부서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농업인 소득향상 43개 기술 보급

원푸드·과수특작 분야 등 37억 투입...농가·단체 사전교육 추진

남원시가 농업인 소득향상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 농업기술보급사업(43개)에 예산 37억원을 투입한다.

남원시는 최근 분야별 전문 농업인 및 단체장 등 16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산·학·협 동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업기술보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주요 사업은 ▲농식품산업 분야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등 5개 사업(4억6000만원) ▲원푸드 분야 특산자원 융복합 가공상품 생산기반 조성 등 5개 사업(5억3000만원) ▲스마트농업 분야 스

마트팜 확대 보급사업 등 14개 사업(16억4000만원) ▲과수특작 분야 최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4억원) 등이다.

시는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요령 등 사전교육을 추진하고 조만간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고인배 남원시농업기술센터장은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지역 농업 발전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해빙기 붕괴·낙석 안전점검



심덕섭(왼쪽 두번째) 군수가 해빙기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해빙기를 맞아 4월 3일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2-4월)에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시설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붕괴, 전도,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지는 도로, 옹벽, 급경사지, 건설공사장, 문화재, 저수지, 노후 건축물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 기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비탈면의 붕괴, 전도, 낙석 및 구

조물의 균열, 침하, 포트홀 등이 우려되는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하도록 하며,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도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유튜브 '정읍See' 구독자 1만명 달성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가 지난 5일 기준 구독자 1만명을 달성하며 시청 소통의 새로 운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See'는 발 빠르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숏폼 영상을 비롯해 현장감 있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구독자 1만명을 돌파했다.

이학수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민 공감형 콘텐츠(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제작에 주력했다.

더불어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시민 영상 공모전, 시민 리포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타 지자체 유튜브 채널과 차별화를 꾀했다. 그 결과 누적 조회 수 144만 회, 누적 시청 3만8398시간을 달성하는 등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시청 성적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정읍See'는 올해에도 시민 중심의 콘텐츠 제작과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읍시See'에서는 2024년 제1회 숏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현재 본선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